

■ 롤러코스터 증시 살아남는 법

위기뒤 기회... 적립식 펀드 가입 적기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여파로 시작된 주식 시장은 시시각각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외국인은 연일 팔고, 연기금은 꾸준히 매입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의 혼란스러움에 갈피를 못 잡아 속만 태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어전략이 치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3대 방어형 투자전략'을 찾아냈다.

◇안전자산을 갖춰라=증시가 불안할 때는 현금만한 안전자산이 없다. 유전자주권 광주지점 정계두 부지점장은 "증시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는 만큼 코스피가 반등할 때마다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산배분도 크게 주식과 채권, 부동산, 현금, 기타로 구분한 뒤 수익률을 점검하고 향후 경기 흐름을 감

코스피 반등때마다 주식 비중 줄여 현금 확보

약세장 지속 땀 종목 신중 선택·다변화 필요

안해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채권, 경기 불안이 심화될 때마다 상승하는 금이나 하락장에서 일정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등 원금보장형 지수연계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다.

◇욕심 버리고 종목을 보라=주식시장은 연일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무차별 무매보다는 저가 매수가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미 대부분의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은 "가치가 크게 절하된 종목이 상당수 나타나 저가 매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 박종모 지점장은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는 단기간 해소 어려움에 취약한 국내 증시 특성상 약세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종목 선택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이끌던 '차·정'(자동차·화학·정유)을 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는 철저한 종목 위주(알짜 중소형주)로 투자를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 끝날지 모를 대외 약세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목표 수익률도 되도록 낮추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적립'으로 방어를 준비하라=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8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주식형 펀드로 7780억원이 들어왔다. 순유입금액은 3일 1400억원에서 8일 24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적립식 펀드는 불확실한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어형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리버브러더스 사태 등 지난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판매에 나섰던 펀드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확실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황건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금융협 임직원들도 지난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며 지난 10일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다.

실제로 적립식 펀드는 최근 금락장에서도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했다. 1806.26으로 장을 마감한 10일 까지 수익률은 9.5%였다. 지수가 1700으로 내려가더라도 3.0% 수익을 내는 것으로 산출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나라사랑 마음 모아주세요” 1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행사장에서 진행중인 광복 66주년 기념 ‘나라사랑 대바자회’를 찾는 고객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대바자회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외코루 균일가전, 여름상품 미감전 등이 열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곳곳에 땅 사둔 대형 할인점 '당혹'

유통법 개정...재래시장과 거리 종전 500m서 1km 밖 확대

내달부터 시행...출점 앞둔 25개 마트 '진퇴양난'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제한 범위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되자 대형 할인점들이 당혹스러워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3000m 이상 백화점, 대형할인점, 아웃렛이나 500~3000m 미만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가 신규 출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이 전통시장과 같은 영세상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여론을 국회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3개월간의 공포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그러자 개정되기 이전 법의 기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1km 사이에 신규 출점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던 대형 할인점들이 곤경에 빠졌다.

보통 부지매입에서부터 점포를 오픈하기까지의 기간이 2~3년 정도 걸리는데, 기존의 법 기준에 따라 반경 500m 밖에 부지를 매입해 신규 출점

을 추진중이던 점포들이 갑자기 개정된 법 규정에 묶이게 돼 이르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신규 출점 예정 점포수는 이마트가 9개, 홈플러스가 9개, 롯데마트 7개에 달한다.

이들은 이미 부지매입과 점포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 개정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와 점포를 달리 활용할 길이 없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특히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려면 점포를 열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지자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허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해저축銀 패키지 매각 무산

KB·하나지주 인수가, 예보 허용가보다 낮아

보해저축은 원래 패키지 매각이 무산

됐다.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전날 보해·전주·대전저축은행 패키지

의 인수가가

예보의 최소허용가보다 낮았다. 예보 관계자는 “본인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찰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예보는 매각조건

을 변경해 다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당초 입찰자가 제안하는 인수 가격과 자산·부채 인수범위,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검토하고 나서 이르던 이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3개 저축은행은 현재 총 19곳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 4곳 등 수도권에 8곳, 비수도권에 11곳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의나라 뽕잎차’ 세계시장 도전

中 상하이 첫 선적...日 편의점 등 시판 돌입

뽕잎을 이용한 웰빙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의나라 뽕잎차’가 중국시장에 도전한다.

나주에 있는 동의나라(대표 강기운)는 중국 상하이성영식품유한공사에 연간 200만병(100만달러)의 동의나라 뽕잎차를 수출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첫 선적을 시작했

다고 14일 밝혔다.

동의나라에서 생산하는 뽕잎차는 국산 뽕잎을 주원료로, 합성 인공 향과 방부제뿐만 아니라 설탕, 카페인, 열량 등이 없는 이른바 ‘5무(無)음료’ 때문에 중국 고급 소비층의 입맛에 맞아 이번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상하이 부유층이 애용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패밀리티 100여곳과 일본 편의점 체인 로손, 재팬플라자 등 고급매장 400여곳에 판매대를 확보해 시판에 돌입했다.

지난해 홍콩 수출 경험이 있는 동의나라는 이번 중국과의 수출계약 성사와 함께 다음달 일본 수출도 예정돼 있어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동의나라 뽕잎차는 지난해 국내 출시 이후 음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기호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무·매출값 강제 유지

출하량 감소로 배추와 무의 가격이 이달 중순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농농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14일 전망했다.

농경연은 이날 ‘로컬푸드 배추·무 주산지 출하 속도’를 통해 이달 중순 배추 상품 10kg(3포기)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9000원(중품 6000원) 내외로 이달 상순(8430원)보다 7%, 평년(5890원)과 작년 동기(6380원)보다 4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특히 과거 10년간 기상변수를 고려할 때 고온 등으로 작황이 더욱 악화할 확률은 35%라면서 이럴 경우 배추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1만원(중품 6900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는 출하량이 줄어들어 이달 중순 상품 18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이 2만7000~3만3000원(중품 1만8000~2만원)으로 상순과 비교할 때 강보합세가 전망된다고 농경연은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평년 동기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가격 수준이다.

/연합뉴스



나주 동의나라에서 생산된 뽕잎 웰빙음료 ‘동의나라 뽕잎차’가 최근 중국 첫 수출에 들어갔다. 동의나라 임직원 등이 수출에 앞서 자축하고 있다. <동의나라 제공>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약 오리 백숙

항암육수 샤브샤브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쪼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